

산업간호사례 : 간염 관리

I. 시작하는 말

먼저 사례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우유 협동조합의 소개를 잠시하고자 한다. 서울우유는 “식품의 꽃”이라 불리우는 시유(우유) 및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1937년 7월 경성농유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내에 3개의 공장과 서울의 본사 및 지방의 영업소 등 2,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우유 제2공장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 346명(남자 312명, 여자 28명)으로 직원 평균 근속년수 15년, 연간 이직율 0.2%로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입사하여 정년 퇴직까지 비교적 안정된 직장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우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B형 간염 예방사업과 건강보균자 관리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전국의 식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그러하듯이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80% 이상의 근로자들이 식품 위생법 제34조(식품 및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자)에 의거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관계로 다른 질병에 비해 B형 간염에 대한 관심과 그 예방에 대한 대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좀더 일찍 요구되었다. 현재까지도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에서는 B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98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의뢰 실시하였던 때만 하여도 B형 간염에 대한 인식이나 보건자에 대한 추후관리 및 그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실시 첫째 B형 간염 검사결과 통보를 받아 놓고는 단순히 B형 간염균을 보균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심각했었다. 간염균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금방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일부 건강보균자들까지도 부서원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식당에서의 단체 급식이 문제가 되고 어느 사업장에서는 집단 병가와 휴직등이 강요되기



서울우유(제2공장)
보건관리자
송영숙

”

노무나 인사를 맡고 있는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설사 B형 간염 항원 양성이라 하여 그 사람들을 휴직 조치하여 격리시키는 것 보다는 (단순히 간염 보균으로 휴직 조치시켰을 경우 항원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결국 영영 복직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음) 남아 있는 무방비 상태의 항원양성 음성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더욱 더 시급함을 설명하였다.

“

도 하였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시하였던 건강진단이 제대로된 홍보나 보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건강 상식이나 그릇된 인식으로 적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심적부담과 불이익을 주었던 것이었다.

II. 간염관리 활동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의 10% 정도가 6개월이상 B형 간염 항원 양성반응을 보이는 만성 보균자들이다 한다. 하지만, 1985년 당시만 하여도 만성 활동성 간염이니 비활동성 간염등의 단어조차도 관계자가 근로자들은 물론 나 자신까지도 생소하기만 하였다.

지금이야 신생아의 경우 시, 군, 면 단위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까지 3회 기본 접종에서 추가 접종까지 무료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당시만 하여도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사람도 드물었고 홍보는 물론 접종약의 3회 접종 금액도 만만치가 않았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이 앞섰다. 노무나 인사를 맡고 있는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설사 B형 간염 항원 양성이라 하여 그 사람들을 휴직 조치하여 격리시키는 것 보다는 (단순히 간염 보균으로 휴직 조치시켰을 경우 항원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결국 영영 복직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음) 남아 있는 무방비 상태의 항원양성 음성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더욱 더 시급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B형 간염 항원 양성반응을 보였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간염균의 활동

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RIA법에 의한 HBe+Ag-HBe-Ab 검사를 실시하였다.

당시엔 경기도 내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 한두 곳에 불과하여 근로자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EIA나 RIA검사가 가능한 임상검진센터를 찾아 가느라 몇번씩 버스를 갈아타며 고생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일주일에 2번 실시한다는 검사 Schedule에 맞춰 채혈을 하고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당시 21명의 B형 간염 항원양성자 중에는 (당시 전체 근로자가 600여명이었음) 2명의 근로자가 활동성 간염으로 판정되었고 19명의 근로자는 비활동성 건강보균자로 판정되었다. 당시 활동성 간염의 판정을 받았던 2명의 근로자에 간기능 검사는 다행히도 지극히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근로자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현재 B형 간염균이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 만은 없었다. 우선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던 부서에서 제품 생산에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부서로의 작업 전환을 시켰고 야근이나 시간외 근무등 건강관리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작업조건을 배제하였으며 일단은 일정기간의 병가를 내어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3개월에 1번씩 간기능 검사와 HBe+Ag-HBe-Ab 검사를 통해 B형 간염균의 활동성 여부와 간기능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비활동성인 나머지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지니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성간염으로의 이환되는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6개월에 한번씩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성 여부와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건강관리실에 통보하도록 지시하였

다. 만성간염이라는 질병자체가 자각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칫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건강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점이 관리상의 큰 어려움이었다. 결국은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가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꾸준한 관리 덕분에 실시 첫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활동성이었던 근로자 중에서 한 사람은 항원이 소멸되어 그결과 항체가 형성되었다(임상학적으로 아주 희귀한 예라고 함). 대부분의 경우 보급하고 있던 항원이 소멸된다 하여도 항체 형성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이며 항원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검사 결과는 항원 항체 음성자로 통보가 되고 물론 이 경우에는 간염 예방접종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백신 제조회사로부터 전해들었다. 항체가 생겼다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는 근로자와 함께 내 자신의 일처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여느 사업장과는 달리 6개월에 한번씩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우리 사업장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성 B형 간염 보균이거나 결핵, 피부질환등 타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거나 식품 제조에 문제가 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없어서 근무를 계속할수가 없는 실정이다. 본인은 이 점을 감안하여 첫째 B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를 실시한 이후 항원 양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번씩 B형 간염균의 활동성 여부와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관리실에 보고하여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예방접종이 요구되는 HBs 항원항체 음성인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꾸준한 보건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예방 접종 사업을 실시하였다.

처음 접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B형 간염에 대한 관심이나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3회 기본 접종의 비용도 적지 않았지만 해마다 접종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늘어 갔다. 그런데, 첫 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나서는 작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분명히 접종 일정에 맞춰서 정확한 용량의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 정도의 근로자들이 일년뒤 신체검사시 HBs 항원항체 검사에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자비를 들여가면서

전국의 식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그러하듯이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80%이상의 근로자들이 식품위생법 제34조(식품 및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자)에 의거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관계로 다른 질병에 비해 B형 간염에 대한 관심과 그 예방에 대한 대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좀더 일찍 요구되었다.

비싼 돈을 주고(1985년 당시는 1회 접종요금이 지금의 4배 정도였었다)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왜 항체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마치 직접 접종을 했던 본인의 책임인양 거칠게 항의하는 몇몇 근로자들도 있었다. 지금도 3회 기본접종 후에 항체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들이 난감해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니면서 자문을 구했고 백신을 직접 생산 판매하였던 제약회사의 임상병리센터에까지 찾아가 궁급하기만 하였던 B형 간염 검사방법과 항체가 형성되는 기전등 또한 일부 특이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하여도 그대로 배설되어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며 그런 경우 B형 간염이 잘 이환되지도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몇몇의 특이체질을 가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B형 간염의 일반적인 검사방법과 HBs 검사의 경우 개인의 역가치나 낮을 경우에는 위양성 반응을 보일수 있으며 3회 기본접종이 다시 이루어질 경우 항체가 확실하게 형성이 될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근로자를 설득하여 다시 기본접종을 맞도록 하였다. 외국에서는 B형 간염 백신을 접종 후 그 백신에 의한 항체형성 유무를 일부러는 따지지 않는다고 들었다. 일단, 기본접종이 Schedule대로 끝이 나면 추가접종이 필요한 시기에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식품업체인 관계로 6개월에 한번씩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그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 항목중에 B형 간염 검사가

”

처음 접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B형 간염에 대한 관심이 나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3회 기본 접종의 비용도 적지 않았지만 해마다 접종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늘어 갔다.

“

포함되어 있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6개월에 한번씩 확인란에 B형 간염의 항체형성 유무나 감염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아마도 이런 점들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B형 간염 관리에 유난히 신경이 쓰여지면서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다. 물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첫째 B형 간염 관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관리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B형 간염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홍보에 의하면 기본 접종후 5년 후에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짧게는 2~3년 만에 항체의 역가가 낮아져서 HBs 검사에서 항원 음성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더러는 5년이상 항체를 길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우리 사업장에서는 검사 결과 항체의 역가치가 떨어져서 위 양성 반응을 보이는 시점에서 1회의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1회 접종 후 다시 항체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주 드문 사례이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B형 간염을 앓고난 뒤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자연면역 근로자의 항체 소실이나 이런 경우 기본접종 3회를 통해서 다시 B형 간염 항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통상 자연면역이 되어 있는 경우 평생동안 항체를 유지할 것이다 생각되었지만 자연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게 자연히 항체가 소실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

III. 실시 성과

세월이 많이 좋아졌음을 실감한다. 국가적으로도 B형 간염의 경우 신생아 무료 기본 접종에서 추가 접종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고 서울우유 전체 사업장에서는 1992년 부터는 직원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해마다 정기 신체검사나 배우자 신체검사를 통하여 항원항체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 접종, 추가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전직원 예방 접종율 100% !

1985년 처음 B형 간염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 당시 항원 양성이라 간염 보균자로 판정된 사람 이외에는 단 한사람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신규 직원 채용시에는 식품업체인 관계로 간염 보균자에 대해서는 입사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미 보균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꾸준한 예방 접종과 함께 직원 가족에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는 전 직원 무료 예방접종은 100% 예방 접종율을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되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시작하여 남다른 어려움이 결국 다른 사업장에 비해 좀더 빨리 전직원 예방접종율 100%를 달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점들이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보람과 긍지를 충분히 느끼게 한다.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는 13명의 건강보균자들이 건강관리실의 관리를 받고 있다. 올해의 건강진단에서는 13명의 근로자들과 개인 면담을 통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를 전원 실시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였다. 1985년 이후 계속 항원을 보균하고 있는 상태이니 현재는 간기능 검사 소견이 정상이고 각각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간의 외견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치료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간에 특이적으로 작용하여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간염 환자의 대부분이 안정요법과 대증요법, 그리고 식이요법에 의존하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어느 항원 양성 근로자의 경우

”

우리 사업장에서는 검사 결과 항체의 역가치가 떨어져서
위양성 반응을 보이는 시점에서 1회의 추가 접종을 실시
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1회 접종 후 다시 항체
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

갑자기 간기능 상태가 나빠져서 상담을 하여 본 결과 경기도 파주 근처에 용하다는 약 짓는 사람이 있어 그 곳에서 기백만씩 하는 약값을 지불하고 성분도 모호한 한약을 지어 먹었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 혹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모양이다. 간염균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간기능 상태가 정상이고 그 균이 활동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없고 특별히 무리를 하지 않으면 본인 역시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음을 누차 설명하였지만 몇년 동안은 보건증 발급시마다 건강보균자로 판정 받았던(현행법에서 B형 간염 보균자라 하더라도 비활동성인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음) 그 근로자의 경우에는 좋다는 약은 뭐라도 다 먹어보고 싶고 누군가 특별한 비방이 있다 하면 찾아보고 싶은 심정이었노라고 털어 놓는 것이었다. 얼마나 떨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면 그리했을까 하는 마음에 안됐기도 하였지만 성분조차애매한 이상한 약들이 간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III. 맺는 말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L씨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985년 당시 L씨는 서울우유에 입사한지 10년째되는 생산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였다.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이던 L씨는 첫째 B형 간염 검사 결과 항원 양성으로 B형 간염 보균자라는 판정을 받고는 무척 고민을 하였다. L씨를 더욱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은 함께 근

무하던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다. 충분한 홍보나 제대로 된 상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들에게 노출되어 버린 건강진단의 결과는 결국 유통성 없이 외곶이었던 L씨에게 사표를 던지게 하는 사건이 되어 버렸다. L씨는 당시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근무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거울 삼아 아무리 사소한 검진 결과라 할지라도 꼭 봉투에 넣어 개인에게 직접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L씨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의 세심한 배려나 적극적인 관리가 있었다면 지금쯤 서울우유의 중요한 몫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한 집안의 가장이 어느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사건이 생겼을때 그 파급되는 영향은 크다. 당시 두아이의 아버지였던 L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시작하였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런 L씨가 얼마 전부터 회사 근처의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생각없이 들었던 주유소 주유대 앞에서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L씨의 어색한 웃음을 마주하는 순간, 알 수 없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그 당시 좀더 누군가 관심을 가져 주었다면, 말수 없는 L씨를 상대로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안내를 해줄 수 있었다면, 무지한 L씨의 동료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심어줄 수 있었다면 이런 곳에서 이런 마음으로 L씨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하는 생각에 보건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함께 느껴본다. 각박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생산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열심인 동료 선배, 후배님들께 뜨거운 찬사를 함께 하면서 사례 발표를 마치려 한다.